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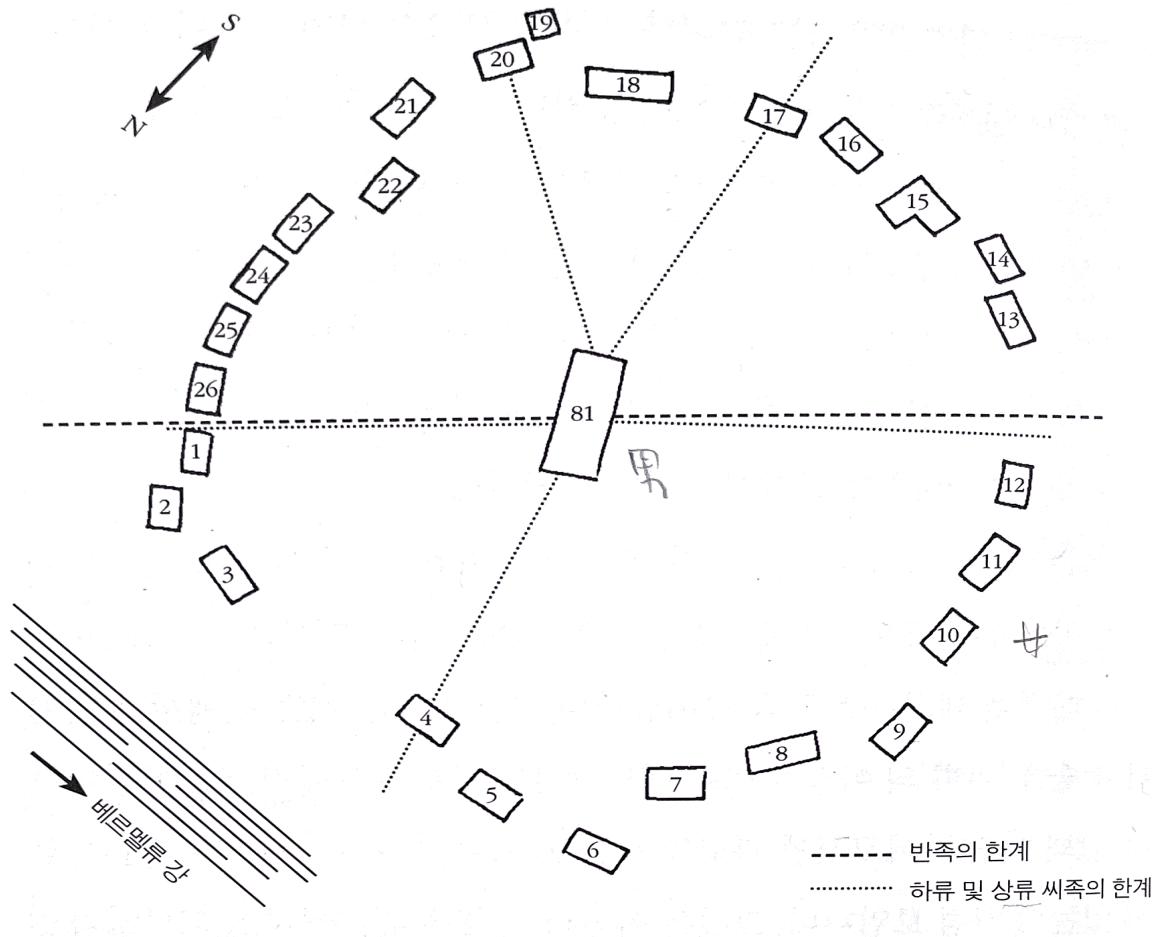
# 철학과 굴뚝청소부 | 6부 1-4, 원

## 구조주의란

- 다양한 것들의 근처에 있는 구조를 보편적이고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찾으려는 시도
- 다양한 지식이나 사고를 가능하게 해주는 무의식적인 사고 구조를 찾으려는 시도 푸코의 에피스테메
- 모든 인간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무의식에 구조를 규명하려는 시도 라캉의 타자
- 다양한 사회의 공통된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 요소들에 결합 관계로써 사회의 본질적 구조를 찾아내려는 시도 알튀세르, 발리바르의 생산양식
- 그러나... 이들은 구조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정 즉 모든 경우를 포괄하여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구조를 찾으려는 시도를 해체하고 파괴함

## 레비 스트로스

- 야성적 사고 : 오랜 세월에 걸쳐 반복 지속적으로 자유를 관찰한 결과. 세계에 대한 지식을 획득 하는 방법에서 과학과 구별 될 뿐 혼돈 넘어서 나름의 질서를 파악 하는 점에서 과학과 마찬가지. 그래서 야성적 사고를 구체적인 것의 과학이라고 부름
- 야성적 사고는 모든 인간이 공통된 선형적 사회 구조, 보편적 사회질서 혹은 구조적 무의식 혹은 사회적 무의식
- 인간의 해체 주체의 해체 : 주체나 인간을 출발점으로 삼거나 철학적으로 수정한 근대적 노력에 대해서 반기
- 주체를 심층구조의 효과로 본다는 점에서, 그리고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탈근대적 문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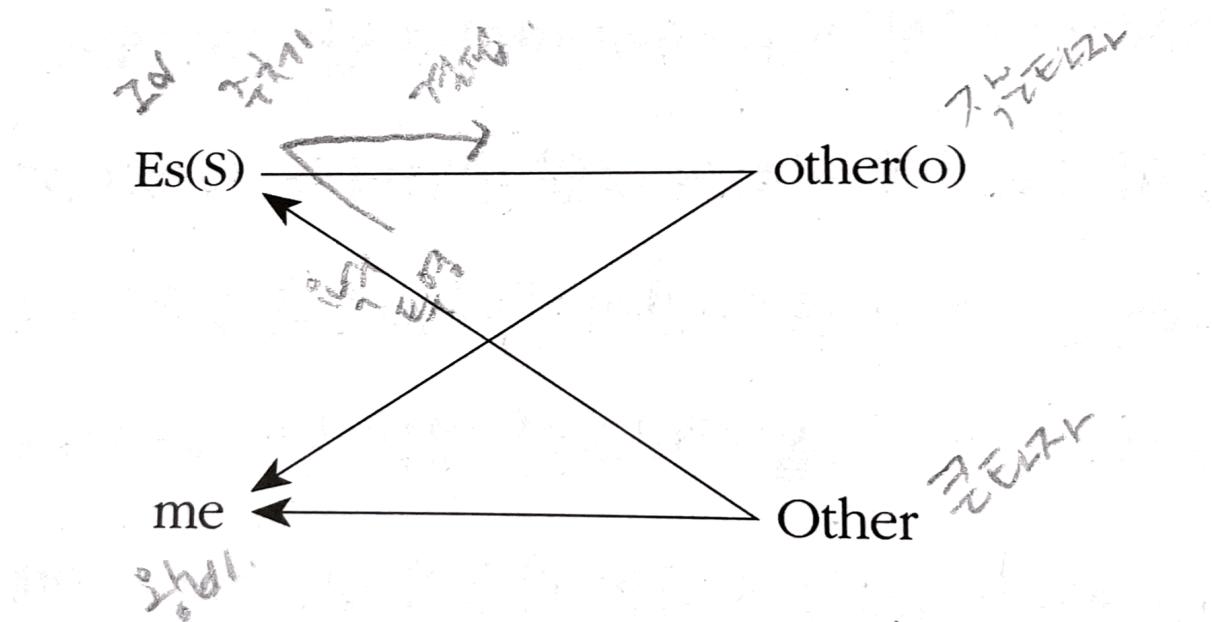


(그림 6-4) 보로로족의 마을 배치도

레비-스트로스에 의하면 가운데 있는 것은 '남자들의 집'이고 원을 그리며 배열되어 있는 것은 여성들이 소유한 기혼자들의 집이다. 보로로족은 다양한 반족(半族)들로 나뉘어지는데, 가령 수평으로 보이는 선을 따라 위쪽은 투가레족, 아래쪽은 세라족이고, 4와 17번 집을 있는 선을 따라 왼쪽은 강의 상류에 사는 족, 오른쪽은 하류에 사는 족 등이다. 투가레족의 남자는 세라족의 여자와 결혼하며, 낳은 아이는 어머니를 따라 세라족이 된다. 투가레족이 죽으면 세라족이 장례식을 해주는데, 부락민의 반이 죽은자의 역할을 하고 나머지 반이 산자의 역할을 한다. 두 명의 상반되는 성격의 주술사도 각각의 반족에 속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어느 한쪽이 상대편의 도움에 의해 즐기고, 다른 한쪽은 상대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만 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었고, 여기서 주거지의 배치는 결혼이나 사회생활은 물론 우주론과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로 엮이는 지반이 되고 있었다. 이 지역에 들어온 살레지오회 선교사들은 이를 깨달았고, 그래서 그들의 주거지 배치를 바꾸어 버리려고 했다. 왜냐하면 "보로로족을 개종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의 부락을 포기하도록 만들어, 모두们들이 평행 열을 이루는 다른 주거지로 옮기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경우 "그들은 모든 면에서 방향감각을 상실해 버리고 말 것"이다. 그것은 사실 그들 삶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빼앗는 것이다. 선교사들은 식민주의자들의 배를 타고 다니며 그들의 만행을 신의 이름으로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이처럼 선교와 개종을 위해 원주민들의 삶 자체를 직접 파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마야의 거의 모든 책과 문서를 '이단'이란 이유로 태워버린 것도 프란체스코회 선교사였다). 그런데 이렇게 공동의 삶 전체를 파괴하고 나서야만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신, 새로운 종교란 정말 그들의 삶을 위한 것일까?

## 라캉

-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즉, 나라는 개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질서와 체계를 가지고 있다
- 무의식은 타자의 담론 - 개개인이 질서로 편입 되는 매커니즘 예를 들면 오이디푸스적 욕구의 억압을 통해 형성 되는 무의식
- 무의식은 타자의 욕망 : 욕구, 요구와 다름. 욕구는 사회적 질서와 언어적 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나타남. 욕구는 언제나 요구를 통해서 표현 되고 충족되어야 하기에 그 충족은 늘 불충분함. 이런 의미에서 욕망은 결핍이라고 한다. 욕망과 요구 사이에 격차로 이내 욕망이 생겨남. 결핍을 매울 대상을 찾아 나서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기에 또 다른 세상으로 끊임 없이 치환됨
- 욕망은 생물학적인 충족이 아님.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대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며 다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인정 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망
- 포의 소설 도둑맞은 편지 사업자는 타자가 욕망 하는 것을 갖고자 하며 타자의 욕망의 대상이임을 인정 받고자 한다 즉 타자의 욕망을 욕망 하는 것이다
- 왕비는 전체 관계 속에서 자기에게 배정된 역할을 자신의 일로 알고 수행하게 된다 즉 편지는 목적지에 배달된다 - 매트릭스 레저렉션



- 주체를 구성하는 타자란 바로 질서를 의미하며 언제나 대 문자로 쓰인다. 그리고 이 타자의 외부는 없다. 즉 이 질서를 벗어나 사고 하는 일은 곤란하다. 무의식의 형성 메커니즘이 질서의 체계에 대한 동일시로만, 즉 타자가 지정한 자리를 자기 걸로 동일시 하는 것으로만 이해되고 있다.

## 알튀세르

- 구조주의와 막스 주의를 접합 : 주체는 인간이란 사회적 관계의 효과로써 만들어지는 결과물 특히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개개인이 주체와 된다
- 인식론적 단절 이후의 맑스로 돌아가자: 어떠한 과학 자도 이전에 있었던 개념을 가지고 사고하면서 그 이데올로기적 개념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새로운 과학적 성과를 이루려면 이데올로기적 개념과 단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누구나 초기에는 이데올로기적 문제 설정과 개념 속에서 사고하며, 이후에 이것과 인식론적 단절을 이룸으로써 과학에 이른다.
- **이데올로기론**
- 이데올로기는 역사가 없다 즉 무의식과 같다
- 이데올로기는 현실적 존재 조건에 대한 상상적 관계의 표상이다
- 이데올로기는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물질적 존재이며 물질적 장치를 통해 존재한다. 무릎꿇고 기도 하라 그러면 믿을 것이다 라는 파스칼의 말 이처럼 특정한 실천을 지속화하는 장치를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라고 하는데 학교 교회 가족 등등이다
- 이데올로기는 항상-이미 개인들을 주제로 호명 한다. 너는 한국인이니 이걸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항상-이미 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진 자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 비판 - 기존 지배적 질서가 어떻게 유지 되고 기능 하는가 하는 메커니즘만 보여 줄 뿐 변화와 전복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할 수 없다
- 이에 알튀세르는 계급 재생 이데올로기는 계급 투쟁을 통해 변화 되고 그것을 통해서만 작동 한다고 설명

## 생각해볼점

- 레비스트로스 - 악성적 사고가 과학임을 증명했으나, 그것으로부터 배우지는 못함. 고대의 근원적 지혜로부터 배우려 하지 않는 근대 이성의 자세.
- 현대사회의 사회적 불안의 구조화 - 타자의 대상이 전세계로 확대되고 미디어를 통해 심화됨. 욕망의 강화 그리고 극심한 결핍
- 과연 '타자의 외부는 없는가'? 결핍의 원인을 분석해낸 서구근대 학문. 조화의 방법을 모색한 동북아의 세계관
- 욕망의 결핍은 필연적이다. 카라멜을 먹고 싶으나 먹지 못하는 아이의 욕망.... 욕망의 전환은 어떻게 가능한가?

나의 한 기운은 천지우주의 원기와 한줄기로 서로 통했으며, 나의 한 마음은 조화귀신의 소사와 한 집의 활용이니, 그러므로 한울이 곧 나며 내가 곧 한울이라. 그러므로 기운을 사납게 함은 한울을 사납게 함이요, 마음을 어지럽게 함은 한울을 어지럽게 함이

니라. 우리 스승님께서 천지우주의 절대원기와 절대성령을 체응하여 모든 일과 모든 이치의 근본을 처음으로 밝히시니, 이것이 곧 천도이며 천도는 유·불·선의 본원이니라.

심화기화(心和氣和) 란 말은 <해월법설> '영부와 주문'편에 나오는 말이다. 직역하면, '마음이 화하고 기운이 화하면 하늘과 더불어 같이 화하리라' 이다. 몸과 마음의 기운이 봄처럼 화해져야 조화롭고 평화로운 몸과 마음으로 온 생명을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련과 공부를 부지런히 하고 정성을 다해 몸과 마음을 닦으면 그것 자체가 평화를 짓는 것이고, 결국 마음과 몸이 활짝 열리고 이렇게 열린 몸과 마음의 세계는 봄의 기운으로 가득 찬 평화의 세계인 것입니다